

성경해석학

제 9 강

현대 적용과 새 언약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9 강 현대 적용과 새 언약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성취(Fulfillment)	2
A. 구약(Old Testament)	3
B. 중간기(Intertestamental Period)	7
C. 신약(New Testament)	8
III. 적용(Application)	13
A. 지침(Guidelines)	14
1. 구약(Old Testament)	15
2. 신약(New Testament)	17
B. 예(Example)	19
IV. 결론(Conclusion)	26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9 강 현대 적용과 새 언약

(Modern Application & the New Covenant)¹

I. 서론(INTRODUCTION)

우리 모두에게는 금방 잊어버리는 경험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며 평생을 함께 하기도 한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이거나 결혼하던 날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을 영원히 변화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현대 세계에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도래는 오늘날 우리 삶에 성경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사건이다.

이번 강의는 **성경해석학** 강좌의 아홉 번째 강의이며, 그 제목은 "현대 적용과 새 언약"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우리 시대에 성경 전체를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구약 성경의 시대적 발전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줄거리가 모든

¹ **Dr. Richard L. Pratt, Jr. (Host)**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He served a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for more than 20 years and was chair of the Old Testament department. An ordained minister, Dr. Pratt travels extensively to evangelize and teach. He studied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received his M.Div.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earned his Th.D. in Old Testament Studies from Harvard University. Dr. Pratt is the general editor of the NIV Spirit of the Reformation Study Bible and a translator for the New Living Translation. He has also author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Pray with Your Eyes Open*, *Every Thought Captive*, *Designed for Dignity*, *He Gave Us Stories*, *Commentary on 1 & 2 Chronicles* and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성경 역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다스리시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표가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시적 영광을 하늘에서 온 땅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광채가 모든 곳에서 빛날 때,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끝없이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근본적인 성경 이야기의 드라마가 누적적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는 여섯 개의 주요 장(즉 시대), 곧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 시대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대적 발전의 누적적 특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과거의 교훈을 자신의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현대 적용과 새 언약에 대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새 언약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 적용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살펴보자.

II. 성취(FULFILLMENT)

우리는 종종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것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곤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경험 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마침내 도래했을 때, 그것은 그분의 백성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새 언약 성취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관점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에 발전한 관점을 설명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럼 먼저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관점을 살펴보자.

A. 구약(OLD TESTAMENT)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소망은 주전 586 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바벨론 유수를 통해 유다에 다가올 가혹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1 장 31-34 절에서 미래에 대한 원대한 소망을 선포하셨다. 그 내용을 들어보라.

(렘 31:31-34 개역개정) “31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 33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새번역: 가슴 속; 우리말성경: 생각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 34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놀라운 소망을 불러일으켰다. 예레미야서 31 장 31 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 모두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새 언약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1 장 33 절이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두는 이상(ideal)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1 장 34 절이 암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새 언약 시대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 강의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러한 새 언약의 소망에 대한 성취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배지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시키실 때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예레미야서 31 장 31 절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시작하지만, 직접적인 문맥을 보면 이 시간적

언급은 오히려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문맥상 예레미야서 31:31-34 은 회복서(the Book of Restoration)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서 30:1-31:34 의 일부이다. 이 더 큰 부분이 회복서라고 불리는 것은 포로 생활과 포로 생활 이후에 따르는 복들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복서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30 장 3 절의 말씀을 들어보라.

(렘 30:3) “보라, 그 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그 날들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²

여기 이 구절(렘 30:3)에 나오는 “그 날들이 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예레미야서 31 장 31 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구절(렘 30:3)에서 “그 날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때와 명백히 연관되어 있다.

² [역자 주]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다음 번역들도 참고하라.

ESV: For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my people, Israel and Judah, says the LORD, and I will bring them back to the land that I gave to their fathers, and they shall take possession of it.”

개역개정: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번역: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a 포로로 잡혀 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a 또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말성경: 여호와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카톨릭성경: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예레미야서 31 장 31 절은 새 언약을 우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연관시켰음이 분명하다.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역사의 정점인 “후일에(in the latter days)” 혹은 “마지막 날/말세에(in the last days)” 일어날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창조가 새로워지는 것과 함께 새 언약이 수립되는 일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서 29 장 10-14 절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시대가 언제 열린 것인지 계시해 주셨다.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렘 29:10-14 개역개정)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 14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께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70 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하셨다. 예레미야서 25 장 12 절에도 같은 시간표가 나와 있다.

실제로 주전 538 년에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가 역대하 36 장 20-22 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 년 포로 기간이 이 때에 성취되었음을 언급하며 그의 책을 마무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곧 새 언약의 시대에 임하기로 되어 있던 다른 많은 복은 어떻게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예레미야서 31 장에 예언된 새 언약의 장엄한 복들은 연기되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 장 24 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예레미야의 70 년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보내셨을 때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다.

(단 9:24 개역개정)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개역: 칠십]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기간이 지나가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암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원래 70 년보다 7 배나 더 긴 "칠십/일흔 이레"로 마지막 날, 곧 새 언약 시대의 더 큰 복들이 연기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때 새 언약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다. 그때 범죄가 끝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의가 임하고, 환상과 예언이 봉인되고, 지성소에 기름부음이 있을 것이다.

(크레익 키너[Craig S. Keener] 박사)³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포로 생활 70 년에 대한 예언에 대해 기도할 때, 그는 "때가 다 되어갑니다.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대답은 그것이 단지 70 년이 아니고 안식일과 그 동안의 모든 방치에 대해 땅이 보상받는 490(70X7)년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행하시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예언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함의가 있는 차원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이미지가 구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애굽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한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지 비교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사용되는 재앙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곧

³ Dr. Craig S. Keener is the F.M. and Ada Thompson Chair of Biblical Studies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후대의 저자들이 이전의 저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읽을 때, 그런 점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 말은 70 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결코 알 수 없었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또 다른 의미도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연기된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 곧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를 살펴보면, 특히 예수님의 지상 사역 직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B. 중간기(INTERTESTAMENTAL PERIOD)

주후 1 세기의 모든 사람은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신약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종교 분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

신구약 중간기가 끝날 무렵, 대다수의 랍비들은 역사의 두 위대한 시대라는 관점에서 마지막 날, 즉 새 언약 시대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째로, 그들은 이전 역사와 그들의 현재 상황을 “이 시대(this age 今世)”라고 불렀다. 랍비들은 포로기의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악의 명백한 승리를 보며 “이 시대”를 실패와 슬픔과 죽음의 시대로 규정했다.

둘째로, 랍비들은 또한 역사의 두 번째 위대한 시대, 곧 미래의 영광의 시대를 “장차 올/다가올 시대(the age to come 來世)”라고 말하였다. 장차 올 시대는 “마지막 날/말세,”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시대로도 알려져 있다. 랍비들은 장차 올 시대가 도래하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세, 곧 장차 올 시대에 포로기의 회개하는 백성을 대규모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시고, 그의 통치를 온 땅에 펼치시고,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땅 끝까지 퍼뜨리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대다수 랍비들은 다윗의 위대한 자손인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 시대에서 장차 올 시대로의 전환이 결정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다. 메시아는 패배에서 승리로, 악에서 의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전환되는 세계사의 대전환점을 가져오실 것이다.

이러한 구약의 관점과 신구약 중간기의 관점에 대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이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자.

C. 신약(NEW TESTAMENT)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눅 22:20]."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을 "새 언약의 일꾼[고후 3:6]"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레미야서 31 장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확언한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레미야서 31 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설명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직 새 언약의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용서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많은 기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비밀, 즉 그가 새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에 달려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지상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해 가다가, 마침내 자신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극치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 장 3-5 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말세에 대한 비밀이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바울은 또 로마서 11 장 25 절과 16 장 25-26 절 그리고 골로새서 1 장 26-27 절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이 비밀을 언급했다.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한 말세[의 성취]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여러 측면을 비밀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이전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플러머[Robert L. Plummer] 박사)⁴ 바울은 그의 서신들의 여러 곳에서 복음 또는 복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헬라어로 [뤼스테리온], 곧 비밀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비밀이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신비스럽고 흐릿한 것 혹은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신약 학자가 설명했듯이, 바울에게 비밀은 하나님께서 잘 보이는 곳에 감추어 놓은 것, 곧 구약에서 잘 보이는 곳에 감추어 놓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드러난 명확한 계시를 통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오, 보세요! 저기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없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것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것을 보세요.”고 말하고 있다. ... 여러 면에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진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한 진리는 바로 거기 구약 성경, 곧 시편과 이사야서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오는 것은, ... “여기 있는 것을 보는 것,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했다.

(샌더스 윌슨[Sanders L. Willson] 박사)⁵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자신에게 알려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복음은 비밀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기 위해 명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한 숨겨져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하여

⁴ **Dr. Robert L. Plummer**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⁵ **Dr. Sanders L. Willson** is Senior Minister at Second Presbyterian Church in Memphis, TN and serves on the boards of The Gospel Coalition, Union University and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말하자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적인 비밀, 혹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 에베소서 3장의 경우처럼 비밀에 대해 말할 때, 때때로 바울은 복음 선포를 통해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에베소서 3 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하고 한 왕국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한다. 정말 놀랍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이 거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방인으로서 나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이다. ...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비밀들은 신약 학자들이 종종 "시작된 종말론" 또는 "지금,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으로 묘사하는 새 언약 시대에 대한 관점을 낳았다. 어떤 용어를 선택하든, 우리는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새 언약 시대의 성취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새 언약 시대의 개시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시대를 "말세/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히브리서 1 장 1-2 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히 1:1-2 개역개정)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독자들의 시기를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언급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왕국 개시와 더불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마지막 날이 세상에 임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을 부어주심 등을 통해 성취하신 모든 것이 새 언약 시대의 이 개시 단계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 특별한 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위해 기초를 닦는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 에베소서 2 장 19-20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엡 2:19-20 개역개정)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God's household)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둘째로, 새 언약 시대의 지속은 교회 역사의 전 기간에 걸쳐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선포와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통해 만국으로 교회를 확장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저자들이 디모데후서 3 장 1-5 절과 같은 곳에서 교회 역사 전체 기간을 마지막 날로 지칭하는 이유이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어보라.

(딤후 3:1-5 개역개정)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나열된 “마지막 날/말세”의 죄는 바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죄이고 역사 전반에 걸쳐 오늘날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죄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3 장 9-10 절에서 이 동일한 시대의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비밀로 언급했다.

**(엡 3:9-10 개역개정)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역사의 전체 기간을 새 언약 시대로 간주하는 것은 옳다.

셋째로, 새 언약 시대의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실 때 극치에 달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왕국의 완성을 “마지막 날”로 묘사한 이유이다. 요한복음 6 장 39 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 6:39 개역개정)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가 언급한 “마지막 날”은 그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궁극적인 마지막 날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1 장 9-10 절에서도 바울은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비밀이라고 묘사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그 완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엡 1:9-10 개역개정)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을 통해 새 언약 시대를 시작하셨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교회를 통해 새 언약 시대가 지속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만유의 왕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시어 새 언약 시대의 완전한 심판과 복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탐구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주요 주제, 곧 새 언약 시대의 전개되는 양상에 기초한 성경의 현대적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III. 적용(APPLICATION)

다음 강의들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중에는 수많은 문화적, 개인적 고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세 단계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성경 적용에 대한 지침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적용의 이러한 측면은 다소 일반적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좌석의 위치에 따라 공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같은 인물과 행동도 각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공연을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좌석에서 두 번 이상 보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이것이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기독교 교회에게 새 언약 시대의 성경 적용에 대하여 가르친 방법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배경이 세 개의 큰 패널로 나뉘어져 있는 무대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청중의 한쪽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개시를 배경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중의 가운데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지속을 배경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중의 다른 한쪽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완성을 배경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을 현대 세계에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할 때 신자들은 먼저 새 언약의 개시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과 성경을 연관시키며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시대의 지속에 비추어 성경의 가르침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 삶에서

성경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를 완성하실 때 성취하실 일의 렌즈를 통해 성경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 언약의 적용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만 다룰 것이다. 첫째로, 새 언약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요약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전략을 보여주는 적용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그럼 먼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살펴보자.

A. 지침(GUIDELINES)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적용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적용의 과정이란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현대 청중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이 정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경에 대한 모든 적용은 원래의 의미를 현대 청중에게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원래 청중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한 방식을 식별함으로써 성경 구절의 원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경 구절이 오늘날 사람들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결정함으로써 이 원래의 의미를 현대의 청중에게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강의들에서 보았듯이, 성경을 적용할 때 시대적 발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성경 구절은 우리와 다른 성경적 믿음의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의 이 시점에서, 시대적 발전이 성경의 원래 청중과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청중을 연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 성경 구절들이 새 언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둘째로,

신약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 성경 구절들에 대한 적용부터 살펴보자.

1. 구약(Old Testament)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은 성경 역사에서 여섯 가지 주요 언약을 언급하지만, 구약 성경의 기록은 이것들 중 단 두 시대, 즉 모세 언약의 시대와 다윗 언약의 시대에만 일어났다.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은 모세 언약 시대나 다윗 언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 백성의 필요 사항을 다루기 위해 기록되었다. 따라서 구약 성경 구절들은 원래 이 두 언약 시대의 신학적 발전에 적합한 개념과 행동과 감정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 성경의 구절에서 새 언약 시대로 이어지는 의미의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지침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새 언약의 세 단계 모두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초림을 통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성취하신 방법에 대한 많은 예를 제시한다. 신약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성취하시는 방법에 주목한다. 신약 성경은 또한 새 언약의 완성에 이를 때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성취하실 방법을 지적한다.

(그렉 페리[Greg Perry] 박사)⁶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이다. 그런데 이 특정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특히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찬양을 볼 수 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추어 구약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음서들을 보면

⁶ **Dr. Greg Perry**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Director of City Ministry Initiative at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눅 4:43].”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열방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무대에 오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체화된다. ...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1 장에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가 승천하시고 그의 부활이 전파되며 사람들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끌리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미래적인 의미도 들어 있다. 사도행전 1 장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탄이 풀려나 마지막 속임수와 반역으로 하나님 백성을 시험할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 마지막 입증이 있을 것이다.

(마이클 크루거[Michael J. Kruger] 박사)⁷ 가장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가 구약의 주제에 비추어 예수님을 묘사한 방식이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대신하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더 큰 제 2 의 출애굽을 인도하기 위해 오신 제 2 의 모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 2 의 모세로 여길 때 떠오르는 예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그 중 하나는 그분이 물 체험을 마친 후 바로 광야로 가신다는 것이다.

⁷ **Dr. Michael J. Kruger** is President and Professor of New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Charlotte, N.C.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물을 통과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아들인 반면, 예수님은 신실한 아들이다.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로 등장한다. 마태복음 5 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 새로운 율법을 주실 때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로 묘사된다. ... 그래서 여러분은 거듭거듭 복음서들과 구약 성경 사이의 조화와 통일성을 보면서 오래 전에 시작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무리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적용하는 이러한 기본 패턴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새 언약 시대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2. 신약(New Testament)

언뜻 보기에는 신약 성경이 새 언약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적용할 때 시대적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가 새 언약의 개시 단계에서 기록되었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 개시 단계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의 지속 단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러한 시대적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약 성경의 책들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손에서 나왔고 원래 새 언약 시대의 개시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이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은 새 언약 시대의 지속 단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많은 함의들을 지닌다. 따라서 이 책들은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위를 갖고 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삶과 오늘날 우리 삶 사이의 몇 가지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도와 인도를 구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널리 퍼진 쟁점들은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처럼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상호 논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권위자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를 받기 위해 그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담겨 있다. 특히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므로 자신들의 권위를 확립했다. 그때는 그랬지만, 오늘날의 권위는 신약 성경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이 구분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종종 우리 시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새 언약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처럼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신약의 저자들은 주로 새 언약의 개시 단계에 특히 중요한 교리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에 전념했다. 예를 들어, 신약에서 유대인의 뿌리에서 이방인 세계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문제는 거의 없었다. 신약에 언급된 여러 논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약의 관습과 추가된 유대 전통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 교회는 이러한 기본 논쟁을 넘어섰다. 복음이 전 세계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⁸ 나는 때때로 사도 시대로 돌아가 사도들의 설교 사역과 그들이 행한 기적과 교회의 삶에 도입한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초대 교회의 많은 경험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경험과 매우 비슷하다. 세계 곳곳에서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받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붙잡았던 복음을 그대로 계속 붙잡고 있다. 하지만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

⁸ Dr. Philip Ryken is President of Wheaton College.

역사상 독특한 시기에 이루어진 독특한 사역이었고, 우리는 사도들이 남긴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직분은 교회 역사의 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을 위해 일세기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직분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그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현대에 적용할 때, 우리는 원래의 의미가 새 언약 시대의 개시 단계에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원래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 우리는 새 언약 시대의 추가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예를 살펴보자. 우리는 그 예로 전쟁에 대한 성경의 강조를 사용할 것이다.

B. 예(EXAMPLE)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악령들과 그들을 따르는 나라들과의 전쟁이라는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책이 어떤 식으로든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발견되는 악과의 전쟁이 새 언약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데이빗 램[David T. Lamb] 박사)⁹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용사, 용사이신 왕, 군사적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은 전쟁이 흔했다. ...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 먼저 재앙들을 보내셨고 결국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싸움을 마무리하셨다. 또 다른 예가 있다. 그때 모세와 미리암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⁹ Dr. David T. Lamb is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병거와 그 탄 자 ... 말과 그 탄 자를 그분께서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노래했다. 여기서 여호와와 용사로 노래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셨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전쟁 주제의 두드러짐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는 이 주제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이 주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자세히 파악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시대의 세 단계에 비추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개시에 주목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세상의 악에 대한 전쟁이라는 주제의 일부 측면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독특하게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의 사역에서 일어난 일을 악에 대한 승리라고 직접 언급하셨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 장 18-19 절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을 읽어보라.

(눅 10:18-19 개역개정) 18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한 골로새서 2 장 15 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치셨다.

(골 2:15 개역개정)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 장 8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엡 4:8 개역개정)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런 구절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적들과의 전쟁이란 주제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시대의 개시 단계 동안 이 전쟁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한 최종 승리의 소망은 없다.

(하워드 아이리히[Howard Eyrich] 박사)¹⁰ 그리스도는 그의 초림을 통하여 사탄과의 전쟁을 보여주시거나 완수하셨다. 아니면 그의 초림은 사탄과의 전쟁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것은 창세기 3 장 15 절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맨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을 본다. 사탄의 머리는 부서지고, 예수님의 발꿈치는—어떤 용어를 사용하든—물리고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가산 칼라프[Ghassan Khalaf] 박사)¹¹ 많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통해 악을 제거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지막 재림의 기초를 닦으셨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악을 제거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악은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싸우신 전투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으며[골 2:15]”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의 일을 이기시는 대승을 거두셨다.

¹⁰ **Dr. Howard Eyrich** is Director of Biblical Counseling at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and Pastor of Counseling Ministries at Briarwood Presbyterian Church.

¹¹ **Dr. Ghassan Khalaf** is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Arab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Mansourieh El Maten, Lebanon.

새 언약 시대의 개시 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 전쟁의 주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 시대의 지속 단계에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초림을 통해 악의 최종적인 패배를 시작하셨지만, 신약 성경은 이 전쟁이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신자들의 경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0 장 4 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전파가 악령과의 전쟁이라고 단언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후 10:4 개역개정)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에베소서 6 장 12 절에서 교회의 전쟁을 비슷한 방식으로 언급했다.

(엡 6:12 개역개정)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벌이는 전쟁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를 시작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혈과 육"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전쟁을 벌인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탄과 다른 악한 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린도후서 5:19-20 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고후 5:19-20 개역개정) 19 곧 하나님께서 ...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 언약이 지속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동료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전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사탄 왕국의 패배를 더욱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 장 14 절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으로 묘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후 2:14 쉬운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에서 전쟁의 예를 들든 신약에서 전쟁의 예를 들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 언약이 지속되는 동안 이 주제를 매일의 사역에 적용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마이크 글로도[Mike Glodo] 목사)¹²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악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시지만, 이것을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범주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국들과는 다른 질서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국가적, 민족적, 사회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쟁을 십자가의 전쟁이 아니라 면류관이나 칼의 전쟁으로 보고 싶어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6 장에서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수단을 실천해야 한다. ... 사실, 마틴 루터는 그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란 찬송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있는 말씀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¹² Rev. Mike Glodo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 Florida.

영적 전쟁의 완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빌립보서 2 장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도 같은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럴 때 복음이 구별되고, 기독교가 일차적으로 강압적으로 보이는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된다.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주된 대조 중 하나이다. 이슬람은 신에 대한 비강압적인 믿음을 상상할 수 없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종교이고, 자기 부인의 종교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종교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와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약 성경은 전쟁이라는 주제를 새 언약 시대의 개시와 지속뿐만 아니라 새 언약 시대의 완성과도 연관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친히 전쟁을 수행하셨던 것처럼,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악과의 전쟁을 결정적으로 끝내실 것이다. 재림 때에는 진노의 대상인 영적 세력과 자비의 대상인 인간 사이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9 장 11-15 절에서 앞으로 벌어질 전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계 19:11-15 개역개정)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가]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악에 맞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시는 이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승리와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다. 죄와 사망의 최후 패배가 일어났을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마일스 반 펠트[Miles Van Pelt] 박사)¹³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전쟁이란 주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종말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주제는 큰 주제이다. ...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주제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먼저 예수님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시기 위해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이번에는 죄인에 맞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맞서 싸우신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여기서 희생자이시다. 그분은 진노를 내리는 자가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받는 자가 되신다. 이제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을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숨기거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홍수에 대한 묘사,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에 대한 묘사, 심지어 앗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묘사 등을 통해,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심판의 그림을 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일의 그림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전쟁과 진노를 겪으시고 그 저주를 경험하셨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과 연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¹³ **Dr. Miles Van Pelt** i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Academic Dean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전쟁의 주제를 정복의 용사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완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신약이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유익한 교훈을 준다. 물론 신약이 주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제를 개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주제를 더 온전히 적용하려면,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시대의 개시와 지속과 완성에 비추어 어떻게 보여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구약에서 시작하든 신약에서 시작하든 어떤 주제를 어떻게 탐색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주제가 새 언약 시대의 세 단계 모두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발견함으로써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IV. 결론(CONCLUSION)

현대 적용과 새 언약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현대 세계에 성경을 적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시대의 개시와 지속과 완성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이 동일한 세 단계와 어떻게 일치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정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현대 세계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 방식에 비추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현재 행하고 계신 일을 살펴보고, 재림하실 때 성취하실 일을 기대한다. 그래야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현대 세계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